화합으로 '봉개' 다운 공동체 만들기 나선 주민들

자연과 문화・역사가 공존하며 평화를 품은 마을 4·3사건 영령들의 안식처인 '4·3 평화공원' 조성 해피바이러스 만개한 봉개 공동체 만들기 매진중

봉개동은 봉아오름(봉개 본동), 명 도암, 웃무드네(용강), 고는새(서회 천), 새미(동회천) 등 다섯 개의 자 연마을로 이뤄져 있으며 마을을 둘 러싸고 있는 스물두개의 오름과 함 께 제주 속에 농촌 전경이 고스란히 묻어 있는 도시 속 농촌마을이다.

봉개동에는 한라산, 오백장군 오 름과 더불어 제주인의 3대 성스러운 성산이라 일컬는 물장오리오름이 있 으며, 그 지맥으로 22개의 오름을 아 우르며 5개의 마을이 형성돼 있다.

한라산 줄기를 타고 내려오다 보 면 목가적인 풍경이 물씬 풍기는 명 도암에 위치한 절물자연휴양림, 노루 생태공원, 참살이체험휴양마을, 유스 호스텔, 어린이교통공원 등이 시설되 어 일상에 지친 도시민이나 관광객 에게 더할 나위 없는 힐링의 공간을 선사하고 있다. 제주의 왕벚나무 자 생지(천연기념물 제159호)와 제주 마(천연기념물 제347호) 육성지도 있다. 숨겨진 비경으로 화천사 오석 불, 동회천의 본향당, 새미하로산당 (제주도 민속자료 9-2호)이 지역의

산 역사를 웅변하듯 마을을 얘기하 고 있다.

특히 4·3사건으로 희생된 넋들과 이름도 없이 죽어 간 영혼들의 안식 처인 4·3 평화공원이 조성돼 있다. 이곳은 가슴에 상처를 안고 살아가 는 유족과 도민들에게는 치유의 장 이 되고 있다.

이처럼 자연과 문화, 역사가 공존 하고 평화를 품은 봉개동은 2011년 번영로 확장을 시작으로 2019년 10 월 10일 번영로를 잇는 애조로가 개 통되며, 제주시의 동과 서,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잇는 관문으로 발돋움하 게 됐고 대단지 아파트 신축 등으로 여느 지역에서처럼 농촌의 도시화가 이뤄지고 있다.

이로 인해 공동체 문화와 마을의 정체성이 퇴색으로 이어질 수 있어 봉개동 자생단체에서는 구세대와 신 세대, 이주민과 선주민간의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한 '봉개다운 공동체 만들기'에 정성을 쏟고 있다.

첫 번째로 2019년 8월 '봉개신문' 을 재 창간했다. 두 번째는 '봉개동



봉개동 다운 공동체 만들기 프로젝트의 하나로 운영중인 '봉개동 마실가기' 행사에 참여한 주민 들. 5개의 자연부락을 돌아보며 마을의 숨은 이야기 등을 보고 느끼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마실가기'이다. 5개의 자연부락을 돌 아보며 마을별 숨은이야기 거리와 자원을 찾고, 지역 주민들이 살아가 는 모습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이주민과 선주민이 상생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2016년 시작해 5년째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세 번째로는 '해피바이러스 만개한 봉개 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추진이다. 국토교통 부 공모사업인 도시활력증진사업의 일환으로 2017년 선정된 '해피바이 러스 만개한 봉개 공동체 만들기 사 업'은 2021년 완공을 목표로 제주시 봉개동 산53-10번지 일원에 4만995 ㎡ 규모로 총 60억원을 투입해 문화

교류센터 신축, 진입로 개설, 공중화 장실, 야외공연장, 체험장, 산책로 등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봉개동은 이러한 사업들이 문화교 류공간 확충과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 로 전망하고 있다.

송두영 동장은 "이제 20여년간 제 주시의 모든 쓰레기를 묵묵히 받아 냈던 쓰레기 매립장도 정리되고 있 다"며 "우리 봉개동은 환경소음에 시 달려 온 지난 세월을 뒤로 하고 이제 새로운 힐링 마을로 재탄생하고 있 다"고 말했다.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노형동주민자치위 정례회의 ·송년회 개최

도로변 정비 등 활동 지속 전개

제주시 노형동주민자치위원회(위원 장 이도일)는 지난 12일 노형동 역 대 주민자치위원 및 도의원 등이 참 석한 가운데 정례회의 겸 송년회를 개최했다. >>사진

노형동주민자치위원회는 올해 관 내 월랑마을 일대 등 주요 도로변에 서 도로에 적치된 물통, 화분 등을 정비하는 등 기초질서지키기 캠페인 을 전개했고 보화당 한의원(원장 허 재혁)과 함께 관내 경로당을 순회하 며 무료 한방진료 봉사활동을 실시 했다. 아울러 노형초등학교와 '등굣 길 교통안전 네트워크 협약'을 맺고 안전한 등굣길을 위해 교통지도 봉 사활동도 실시했다.

지난 2015년 6월 자매결연을 맺은 가야읍 주민자치위원회와 농특산물 특판 행사 개최, 축제 방문 등 다양 한 상호교류를 통해 결속을 다지기



도 했다. 지난달에는 주민자치 역량 을 함양하기 위해 서울시 종로구 한 국주민자치중앙회를 방문해 김경호 한국주민자치중앙회 연수원장의 강 의를 듣기도 했다.

김경호 연수원장은 이날 '주민자 치&리더십'이라는 주제의 강의에서 "주민자치가 성공하기 위해선 생각 을 행동으로 옮기고, 의사 소통 능력 과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야 한다"며 "주민관치가 철옹성이라고 해도 우 리가 주민자치를 향해 뜻을 모으면 무너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고대로기자



한라봉따기 행사 '눈길' 양윤경 시장 학생들과 체험

양윤경 서귀포시장이 지역내 학교 밖 청소년들과 함께 농가체험을 통 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양 시장은 지난 14일 지역내 학교 밖 청소년 10여명을 초대해 남원읍 신례리 소재 한라봉 재배농가를 방문 했다. 이날 양 시장은 청소년들에게 한라봉에 대한 이야기와 수확 방법 등을 안내하고 직접 청소년들과 함께 한라봉 수확에도 나서며 뜻깊은 시간 을 가졌다. 또 이날 양 시장은 청소 년들과 함께 지역에 소재한 동백나무 군락지를 방문하고 식당에서 함께 식 사하며 간담회를 진행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의 고민에 귀를 기울였다.

행사에 참여한 조소연 양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시장님의 격려와 응원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꾸 준히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애월읍-조리읍 주민자치위 공동발전 모색

13일 파주시 조리읍 방문 활발한 상호 교류협력 약속

제주시 애월읍주민자치위원회(위 원장 강남석) · 애월읍(읍장 부태 진)은 13일 자매결연지 경기도 파 주시 조리읍 주민자치센터를 방문 해 공동 발전을 모색했다. >>사진

애월읍과 조리읍 주민자치위원 회는 지난 2009년 12월 자매결연 을 맺은 이후 주민자치센터 발전 을 위해 상호방문 교류를 이어오 고 있다.

정기화 조리읍 주민자치위원장 은 이날 "조리읍을 방문해 주신 애월읍 주민자치위원장 이하 주민 자치위원들께 감사드린다"며 "해 를 거듭할 수록 두 도시 간 우호 관계가 돈독해짐을 느끼며 앞으로



도 서로 협력하며 발전하는 자매 결연 관계가 지속되길 바란다"고 다"고 말했다. 말했다.

이에 강남석 애월읍 주민자치위 원장은 "2009년 조리읍과 자매결 연 이후 지속적인 교류 추진을 통 해 1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를 기 점으로 앞으로도 더욱 활발한 교

류와 굳건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겠

이에 앞서 지난 3월 22일에는 조리읍 주민자치위원회가 애월읍 주민자치위원회를 방문, 주민자치 센터의 발전적 방향을 제시하고 상호 협력하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고대로기자

강정상록아파트내 공립 어린이집 개원

서귀포시, 지난 14일 문열어 장애아전문어린이집도 신축

서귀포시는 지난 14일 강정동 소재 강정상록아파트내에서 '공립 꿈꾸는 어린이집'을 개원했다. >>사진

강정택지개발지구와 신시가지 일 대에는 공동주택들이 들어서면서 보 육수요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공무원연금공단 소유의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20년 무상임대 계약을 체결해 공립으로 전환했다. 또 인근 혁신도시내 바람모루공원에 는 도내 첫 공립 장애아전문어린이 집도 최근 신축돼 개원을 앞두고 현 재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 40명을 모집중으로, 지역의 국공립 어린이집 수요에 대응하게 된다.

시는 공립으로 전환된 꿈꾸는 어 린이집 리모델링과 기자재 구입에 1 억원을 투자했고, 앞으로 인건비와 운영비를 보조해 더 나은 보육서비 스를 제공하게 된다. 꿈꾸는 어린이 집 정원은 40명으로 현재 37명의 아 동이 이용중이다.

현재 서귀포시 126개 어린이집 중 국공립어린이집은 18개소, 이용률은 15.9%로, 전국평균 이용률 (10.8%)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시 관계자는 "앞으로 2022년까지 국정과제인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률 40%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보 다 건강하고 안전한 보육 환경과 서 비스가 제공되도록 지원할 계획"이 라고 밝혔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40년 전통 연구 개발 창업자



한번 칠하면 100% 방수되고 오래가는 칠만표 수용성 방수페인트



(주시공처·건입동 현대아파트·외도 일우아파트 외)

특징 통기성 (공기는 통해도 물은 들어가지 않는) 이 있어 들뜨지 않습니다.

용도 모든 콩크리트 건축물 일절 (옥상, 외벽)

※ 소비자가 인정하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수제

특징 용도 ○강한 접착력은 들뜸이 없고 부식이 안돼 장기간 미관유지

○ 드라이비트 및 콩크리트외벽 (주택, 아파트, 빌라, 팬션, 호텔, 상가 등) (시간절약, 비용절약) ○ 타일면 ○ 벽돌면

○스톤면

○단열효과로 집안이 쾌적하다

※세 찬 비바람과 비가 자주오는 제주 주택에, 특히 드라이비트 외벽에 참 좋습니다.





성글 지붕용 탄성도막방수제



자외선에 삯(부식)아 있는 슁글 지붕에 칠하면 100% 방수되고 단단한 새 지붕으로 바뀝니다.

최고급 벽난로 판매

○ 100% 스덴연통 설치 ○ 무동력 펠릿+화목겸용





○ **초기점화 30초내** ○ 종류: 장작용, 정원용, 캠핑용 벽난로

★ 주요생산품: 녹/회색 접착방수제, 황토방수제, 균열보수제, 모체강화제, 수용성침투성방수제(발수제), 타일줄눈방수제, 결로방수제, 고농축완결방수제, 급결지수제, 우레탄류



- 금강종합건재 『(G) 페인트 · 칠만표방수제 · (주)대화정밀 · 현대공구 · 난로세상 제주대리점 T. 752-8209, 758-8209, F. 753-8209 ※모방품주의비랍니다.